

# 경영이 어려워지면 질병예방도 소홀해진다.



김 원 태  
남매농장 대표  
본회 포천육계분회장

나라사정이 금융위기니 외환위기니 어수선하게 돌아가는 가운데에서도 꽃샘추위는 어김없이 찾아 오는 것을 보니 자연현상은 순리대로 흘러가는 느낌을 받는다.

환절기인 3, 4월이 되면 모두들 질병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농장경영이 여의치 않아 예방에 만전을 기할 여력 들이 없는 실정

이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원화가치가 내려가니 닭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사료와 연료, 약품 등의 값이 50%이상 올라 생산비가 큰폭으로 뛰었으며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경기가 좋을 때 정책자금을 받은 사람 역시 어려워지고 보니 원금은 커녕 이자 값을 길도 막막한 지경이라고 하소연을 하고 계열업체들이 어려워지니 계약 농가수를 줄이고 있다는 반감지 않은 소식이 들려와 자칫 부실 농가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한다.

닭을 가져가는 유통업자들도 부도가 나기도 하고 출하를 하여도 자금난으로 닭값을 낮게 주는등 자금난을 겪고 있어 이런 모든 어려움을 끝내는 농가가 부담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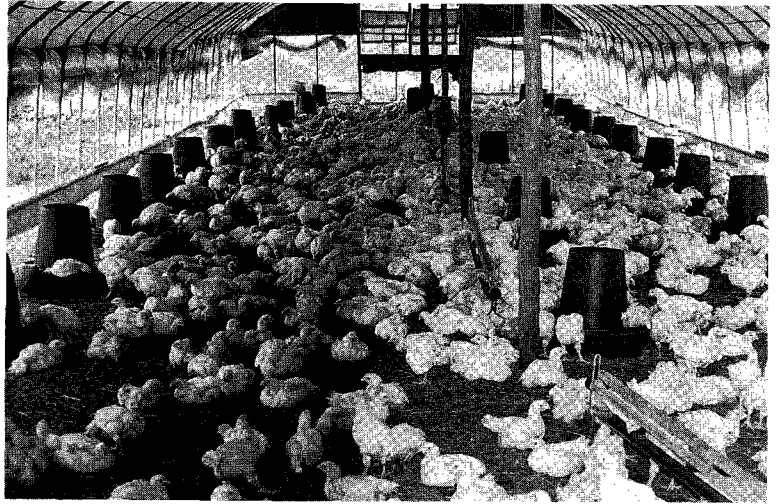
부화장의 경우에도 농가가 어려워 병아리를 입식을 하지 못하여 그들대로 걱정이고 이런 가운데 사료질이 떨어지고 병아리 품질이 좋지 않아 생산성을 예전같이 이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농장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사양관리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다.

생산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값 등도 닭 결제대금은 외상이나 일부 어음으로 받으면서 농가 지출은 현금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니 이에 따른 이자 손실이 얼마인지도 따져 보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당장에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이 없어 여기저기서 차입을 하기에 바쁜 처지이다.

질병에 대한 대책과 예방이라는 것은 결국 닭을 키우는 사람의 닭에 대한 정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농장을 운영 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양관 리, 특히 질병에 신경을 쓸 시 간과 의지가 줄어들어 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질병에 무관심하기 보다는 특이할 것 이 못된다는 안이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같아 걱정이 된 다.



### 1. 생산성, 기본에 충실하 여야

농장 운영이 악화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품질하락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이 줄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료품질, 병아리 품질, 관리자의 능력과 계사환경 등 시설여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들어 기존 시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요소들이 농가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하고 잘 자라는 닭을 키우는데 사료는 매우 중요하다. 농장 운영상 지출비 입장에서 보아도 생산비의 60%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사료값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몇차례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환율인상에 적정하게 값을 올리지 못하여 사료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료회사의 어려움이 농가에게 돌아와 사료의 질이 떨어졌느니 출하시기가 늦어지느니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사료회사 역시 언제까지나 불이익을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러한 요인들로 인한 피해를 농가가 모두 짊어주어야 하는 것이 안타깝고 억울할 뿐이다.

사실 농가 입장에서는 사료가격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품질이 균일하고 우수한 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생산성이나 관리에 있어 훨씬 경제적이라고 생각한다.

사료품질에 대한 불신은 결국 계획적인 생산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발생으로 겪지 않아도 될 고통과 스트레스로 사기저하는 물론 경쟁력도 잃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농장은 사료파동 이후 C회사의 사료로 바꾸어 쓰고 있는데 예전의 사료요구율이 2.0~2.3 정도이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사료요구율이 어느정도 될지 관심을 갖게 된다.

병아리의 품질 역시 사료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부화업체 역시 여기저기 시달리느라 상대적으로 병아리 품질관리 즉 사양관리와 질병예방 프로그램 등에 소홀히 하여 왔다고 생각된다.



질병에 대한 대책과  
예방이라는 것은  
결국 닭을 키우는 사람의  
닭에 대한 정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농장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양관리, 특히 질병에 신경을 쓸  
시간과 의지가 줄어들어 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질병  
무관심하기 보다는 특이할 것이  
없다는 안이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같이  
걱정이 된다.



사육농가는 닭을 키우고 관리하는데 온 신경  
을 쓰고 전념해야지 지금처럼 자금사정이 어려  
운 가운데 사료 걱정하고 병아리 걱정하며 농  
장을 운영한다면 생산성 향상은 커녕 사기저하  
만 가져와 닭을 키우는 마음마저 헤이해질 수  
있다

그러나 사정이 이렇다고 관리자가 닭에게 소  
홀히 할 수는 없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심란한 마음을 계사에서 차분하게 달래며 기존  
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비어있는 계  
사는 소독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육성중인  
계사는 그동안의 경험을 잊지않고 질병예방 등  
사양관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문제 발생시 혼자  
해결하려는 것 보다는 여러 도움을 받아 끝까  
지 잘 키우려고 노력한다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어려울 때에는 사양관리만큼은 교과서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2. 질병발생 대책,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

언제나 이맘때 썸이면 질병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는 하지만 올해는 설상가상으로 여러  
악재들이 많아 걱정이 되고 있다.

외적인 요인으로는 지구 온난화로 올 겨울철  
이 고온다습하여 예년 겨울에 비해 평균 약 2  
도씨 가량 온도가 높아 질병발생에 유리한 환  
경이었고 생산원자재의 품질이 떨어지고 악품  
비가 거의 배이상 올랐으며 농장운영이 어렵다  
보니 질병예방 등 사양관리에 전념할 수 없었  
다는 것이다.

즉 이맘때 썸이면 어떠한 질병예방이 필요한  
지 알고 있으면서도 현금을 차입하거나 업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보를 듣기 위해 계  
사를 비우는 시간이 늘고 또한 계사가 비어있  
는 경우에도 충분한 방역관리가 이루어지지 못  
했다고 할 수 있다.

관리자의 능력면에 있어서도 시설이나 규모  
는 커지고 고급화 되었지만 질적으로는 관리자  
가 기존의 소규모의 사양관리 방법에서 벗어나  
지 못하여 질병이 쉽게 침입할 수 있는 계사환  
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방  
역 프로그램 이라던지 계사의 환기시설, 온도  
관리 등에 예전의 방법을 고집 손실을 초래하  
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질병발생이 복잡적이고 원인이 뚜  
렷하지 않으며 일단 발생이 되고나면 약제에  
대한 내성이 강해 치료효과를 크게 기대하거

어려우므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철저하고 정확한 예방만이 질병을 막아낼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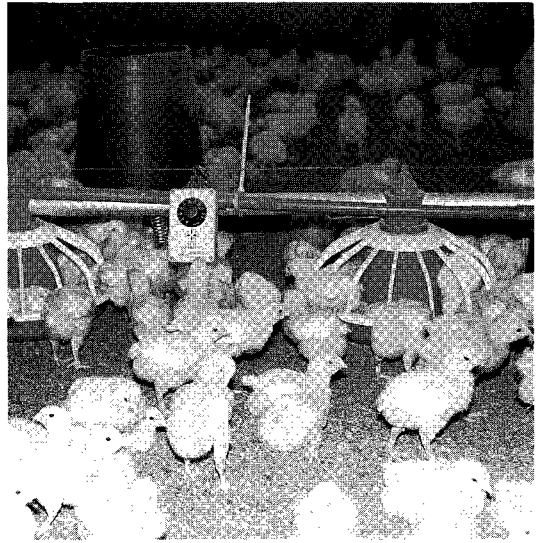
또한 현실적으로 출입에 대한 통제와 방역이 쉽지 않더라도 이를 지키려는 노력과 질병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10일령을 전후하여 감보로에 전염이 되고 나면 사람의 에이즈와 비슷하여 다른 질병에 쉽게 감염이 되므로 주의하여 예방을 하여야 하고 일단 감염이 의심이 되면 2차 감염을 막기위해 계사온도를 3℃ 정도 높여주고 항스트레스제나 영양제를 공급함으로써 차후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농장의 경우에도 예방에 소홀했던 2년 전에 설사와 호흡곤란, 기력상실 등의 증상을 보여 인근 동물약품에 문의한 결과 질병이 복합적이고 변이형이라 확실한 진단이 어려워 결국 약 500여수 이상이 폐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인근 지역의 경우 호흡기 질환으로 하루 100수 이상이 폐사하는 농가가 밀집하여 피해가 크다는 소식도 접하고 있어 질병에 대한 경계를 안이하게 하여서는 안될 것 같다.

현재는 4주령의 닭을 뉴캐슬과 감보로, IB 등의 예방접종을 실시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인근 수의사나 동물약품의 도움을 받고 있다.

온도관리는 찬공기는 계사바닥으로 가라앉으므로 계사내에서 사람이 느끼는 체감온도와 닭에게 영향을 주는 온도는 차이가 있으므로 적정한 높이에 온도계를 설치 수시로 확인하는 노력이 지켜져야 한다.



더구나 환절기에는 언제 찬바람이나 비에 피해를 받을지 몰라 계사를 개방하기 어려우므로 더욱 온도관리와 환기에 주의를 해야 한다.

재래식 계사의 경우 최신계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됨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나 방역에 오히려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육계의 경우 재래식이라도 경제성이 있으며 오히려, 요즘같이 시설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채산성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사양관리를 철저히 하여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면 일류계사에 못지않은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질병이 우려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질병이 발생하고 나서야 어떻게 해보려는 뒤늦은 자세보다는 질병에 있어서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실행에 옮기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철저한 사양관리와 질병예방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고 싶다. **양계**